

보도시점 2025. 2. 26.(수) 12:00 (목요일 조간) 배포 2025. 2. 25.(화)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부처 봄철 초미세먼지 저감 총력 대응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공사장·도로 날림먼지 저감,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 격상 등으로 대응체제 가동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정부에서는 계절적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1~3.31)를 시행 중에 있다.

※ 관계부처 합동,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24.11)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mu\text{g}/\text{m}^3$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꼽힌다. 특히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고 국민들의 야외 활동이 증가하며, 건설공사(비산먼지) 확대, 영농 준비(불법 소각)로 인한 대기오염 증가 요인 등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도 좀 더 강화된 추가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

* '15.12~'24.3년 평균 : (PM-2.5 농도) 12월 24.0 → 1월 26.1 → 2월 26.0 → 3월 26.8 $\mu\text{g}/\text{m}^3$
(나쁨 일수) 6(12월) → 7(1월) → 7(2월) → 8일(3월)

이에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과 함께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주요 오염원 집중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현장소통 및 대국민 홍보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6차 계절관리제('24.1~'25.3) 동안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3) 배출량 대비 PM-2.5 4,708톤(21%), SOx 34,825톤(41%), NOx 50,374톤(13%), VOCs 22,159톤(7%) 감축

첫째,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활공간 주변의 초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봄철을 맞아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대해 청소차 운영을 일 최대 4회까지 확대하고,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 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 분체상 물질 야적시 방진덮개 사용, 수송차량 적재함 밀폐 및 측면살수 후 운행 등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하고 초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옥외근로자 근무 사업장은 맞춤형 관리방법(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한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이틀 이상 지속 또는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자체적으로는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평상시보다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한다.

둘째, 초미세먼지 주요 오염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운행차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현장점검과 함께 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여 불필요한 배출을 최소화한다. 또한,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특별 단속한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민관합동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은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불법 소각 여부도 단속한다.

선박연료유(황 함유량) 기준* 점검을 월 300척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 배출규제해역(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평택·당진) 0.1%, 기타 모든 해역 0.5%

셋째,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여 배출저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사업장, 공사장, 관용차량)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1단계(관심)부터 2단계(주의) 수준으로 격상하여 추가적으로 배출량 감축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인천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3월에는 대전광역시(전체)와 경기도 19개 시군에서도 동참할 계획이다.

구분	비상저감 조치 수준	
	1단계(관심)	2단계(주의)
대응 수준	-	○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15~20% 감축	○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추가 단축(연료 사용량 감축 권고) * 배출량 25~30% 감축
	-	○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공정 금지, 공사중단

또한, 겨울철 대비 난방수요 감소 여건을 반영하여 공공 석탄발전(53기)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24.12월~’24.2월) 15기에서 봄철 28기로 확대(잠정)한다.

넷째, 현장 소통과 대국민 홍보로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유역(지방)환경청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간부 공무원이 전담하여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현장의견을 듣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한 봄철(‘25.3~5월) 미세먼지 계절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 등)를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었음에도 국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인 만큼 봄철 총력 대응을 통해 국민들이 대기오염물질 걱정 없이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요약).
 2.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한나	(044-201-6860)
		담당자	사무관	임옥상	(044-201-7722)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책임자	과 장	김영민	(044-200-2652)
		담당자	사무관	강현수	(044-200-2663)
	행정안전부 기후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서기관	손승남	(044-205-6369)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용하	(044-203-6657)
		담당자	사무관	오은경	(044-203-6658)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사무관	임한구	(044-201-2618)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담당자	사무관	손민경	(044-203-388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재원	(044-202-2510)
		담당자	사무관	박동희	(044-202-2505)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책임자	팀 장	신옥균	(044-202-8890)
		담당자	사무관	박현건	(044-202-8891)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이주열	(044-201-3823)
		담당자	사무관	최효준	(044-201-3786)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280)
		담당자	사무관	박은영	(044-200-5289)

붙임 1

봄철 총력대응방안 개요

구 분	제6차 계절관리제 (‘24.12~‘25.3)	봄철 총력대응방안 (‘25.2.27~3.31)
생활 주변 국민 건강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청소차 확대 운영 (일 2회 → 2~4회) ○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집중점검 (2.27~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취약계층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 근로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 관리실태 지도 점검 및 컨설팅(1,500개소) ○ 민간·취약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미세먼지 안전점검, 고농도 행동요령 안내·교육 ○ 고농도 시 탄력근무 적극 시행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철도, 공항 등) 공기질 관리 강화, 환기·공기정화설비 특별점검(2.27~3.31)
주요 오염원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배출 감시·단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감시장비 활용 사업장 집중단속(2.25~3.31) ○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집중단속(3.1~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사업장 감축 이행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발적 협약 및 의무 사업장 배출저감 이행실태 집중점검(410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불법소각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2.17~4.30, 1~2회/주 → 3~4회/주, 5만톤) ○ 영농잔재물 파쇄기 지원 및 파쇄지원단 집중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항만 미세먼지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 연료유(황 함유량) 단속 확대(월 260→300척) ○ 항만 비산먼지 운영실태 합동점검 강화(2주 1회 → 주 1회 이상)
공공 부문 배출 저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비상 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저감조치 시 대응 수준을 1단계부터 2단계 수준으로 격상 시행[인천, 대전, 경기(19개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발전 가동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동정지(15기 → 28기) (잠정)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전담관리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부전담관리제(환경청)로 이행점검 강화(4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제공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봄철(‘25.3~5월) 미세먼지 계절전망 ○ 관계부처 합동, 기관장 현장 행보 및 유튜브, SNS, 전광판 등 다각적 홍보 실시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대/응/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핑,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하기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법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온몸을 구석구석 씻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등



6 환기,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평시 환기	조리 시 환기
하루 3번 30분 이상(오전 10시 - 오후 9시) 환기 실시	주방후드 기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고농도시에도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실시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